

농어촌공사·KT·대한노인회 '농어촌 IT 서포터즈'

✎ 이지효 기자 | ⓒ 승인 2025.07.06 15:26

3개 기관 협업... 키오스크 사용법 등 진행

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, KT충남충북법인고객본부(본부장 송영태),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(회장 이명식)이 협업해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한 '농어촌 IT 서포터즈' 활동이 2달여 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. /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

[중부매일 이지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, KT충남충북법인고객본부(본부장 송영태),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(회장 이명식)이 협업해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한 '농어촌 IT 서포터즈' 활동이 2달여 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.

'농어촌 IT 서포터즈'는 농어촌 고령농 등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활동이다.

IT서포터즈 마지막 활동은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'성암3경로당'에서 1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

행했다. 어르신들은 인근 카페에서 지난 주에 교육받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.

지난해 시작된 '농어촌IT 서포터즈'는 올해 2년 차를 맞아 지난 5월 13일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한 바 있다.

특히 올해는 카페, 식당 등에서 실습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등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여 진행해 증평군, 옥천군에서 총 8회 100여명의 어르신의 IT 교육을 진행했다.

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"지난 2개월간 교육에 참여해주신 농촌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"며 "앞으로도 공사는 여러 기관의 역량을 함께 모아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

이지효 기자 jhlee@jbnews.com